

# 금융권도 코로나 격랑속으로... 지점폐쇄 속 스미싱까지

코로나 19 악용한 금융사기 급증  
감염우려있는 직원 자가격리 조치  
금융전산 위기경보 관심으로 격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권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점이 임시 폐쇄되는가 하면 코로나19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금융당국은 금융전산 위기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하고, 각종 스미싱을 비롯한 루머·풍문 유포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 ◆은행권, TK지역 일부 지점 폐쇄

은행권은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폐쇄하거나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비상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1일 대구지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지점을 임시 폐쇄했다. 현재 수협은행은 대구지역에 회원조합 포함 7곳이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질병 관리본부 주관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며 "지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 1km 인근의 반월당 금융센터, 경북지역금융본



농협중앙회 허석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오후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협

부, 서대구 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도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입점한 동산의료원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3일 "동산의료원이 국가 지정 코로나 확진 환자 전용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며 "기존에 입원했던 환자가 모두 퇴원하면서 해당병원에 입점한 동산의료원 출장소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전국 240개 지점 중 221개 지점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따라 방역 소독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며 "특히 출입문 손잡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으로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대구 침산동 지

점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지점을 임시 폐쇄했다. 국민은행은 대구 침산동 지점에 대해 주말 동안 추가 방역을 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체 직원을 통해 개인 은행업무만 수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대구지역 영업점 4곳을 임시 폐쇄했다. 24일부터 정상영업한다. 달성군지부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있어 해당 지점을 폐쇄, 감염 우려가 있는 직원 63명을 자가 격리하고 대체 영업점을 운영해온 것. 검사 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폐쇄했던 대구지역 영업점 4곳은 24일부터 정상 영업한다.

이 밖에도 TK지역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코로나19 정상문자와 의심문자 비교 /전북은행

해 비상계획 매뉴얼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지방 지역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점 업무를 보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편과 피해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TK지역에 지점을 둔 은행은 신한 49개(전국 전체 873개)·KB국민 75개(1016개)·하나 39개(705개)·우리 40개(870개)·부산 1개(256개)·경남 4개(190개)·대구 221개(245개) 등이다.

해당은행 관계자는 "대구지역 영업점을 대상으로 소독횟수를 늘리고, 영업점 입구에 열 감지기와 체온계를 설치해 출입인의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 빠르게 자가격리하고 인수인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안감 악용한 스미싱 급증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휴게소 확인', '마스크 무료 배포'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해킹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건수는 9688건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화로 질병관리 본부를 사칭해 방역을 위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유사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전산 위기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했다. 금융전산 위기경보는 사이버테러나 자연재해, 금융위기, 북한 도발 등 국내 금융전산망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 발령한다.

경보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나뉜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금융전산망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기보, 기술평가 노하우 세계銀에 전파

美서 열린 '한국혁신주간' 참석  
개도국 혁신기업 지원강화방안 논의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기술보증기금이 세계은행에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기보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혁신주간'에 참석해 세계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 무역기구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가의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 및 기술평가 노하우 그리고 기획재정부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사례 등을 전파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조명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에선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왼쪽 첫 번째),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부총재 등을 대상으로 기보의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보

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약 140명이 참여했다. 세계은행에선 사오린 양 사무총장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정책수립을 총괄하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기보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테마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

서 기술평가의 핵심엔지니어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인 KTRS와 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전수받아 자체 평가시스템인 TTRS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태국 사례를 공유하며 기보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KB국민銀 특별관리지역 대구·경북에 긴급지원

KB국민은행은 23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

타뱅킹·자동차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경북지역 KB국민은행 거래 고객은 인터넷뱅킹 및 스타뱅킹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점내·외 자동차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도 동시에 받

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거래 고객, 브랜드 제휴기기 이용 고객은 제외된다.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한다. /양שמ기 기자

## 어려움 겪는 中企에 건물임대료 30% ↓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고 23일 밝혔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3만여건 이용중지

### 금감원 "최고금리 초과 요구도 다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을 사칭해서 민대출로 위장하는 가하면 월 5%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다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이 1만 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103건 ▲유선전화 775건 등의 순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등의 순이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광고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팩스나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사례 1625건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이 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311건)과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며,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과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שמ기 기자 smahn1@